

설명적 텍스트의 중심내용 분석 원리

김 봉 순 (공주교대)

<차례>

- I. 서론
- II. 중심내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 III. 중심내용의 분석 원리
 - 1. 포괄성의 원리
 - 2. 선호성의 원리
 - 3. 상호성의 원리
- IV. 결론

I. 서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일이다. 중심내용이란 그 글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또는 필자의 의도를 집약한 내용이다. 독자는 중심내용의 파악을 통해서 글이 전달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독해에서 중심내용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있어 왔고,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1920년대 이래로 꾸준히 점증해 왔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중심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중심내용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는가를 명료하고 시원스럽게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무수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중심내용의 파악을 가르칠 때에는 왜 이것이 중심내용이 되는지를 근거

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여전히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하거나 기타 몇 가지 보조 전략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독해 지도는 직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중심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즉 학생들이 중심내용 파악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독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심내용 파악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에서 원리 지도의 필요성에 터하여, 중심내용의 파악 방법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원리로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심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의 근거와 과정을 보임으로써 어떠한 글에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심내용 분석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선행 연구를 살펴 중심내용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중심내용 파악의 원리나 전략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것을 정리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렴하면서 중심내용 분석의 원리를 정립해낸다.

그런데, 본 연구의 중심내용 분석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설명적인 텍스트(expository text)로 한정된다. 설명적 텍스트는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함축적인 방식보다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글의 의미가 명시적이다. 그리고 설명적인 글의 특성상 글의 내용이 감상이나 정서를 토대로 씌어지기보다는 논리성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논리에 터한 객관적인 중심내용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미의 명시성과 논리성으로 하여 설명적 텍스트는 중심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의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사적인 텍스트(narrative text)를 포함해서 문학적인 글은 표현 원리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내용의 분석 원리 또한 설명적인 텍스트와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다른 장르의 글에 비하여 중심내용 분석에 독자의 주관성이 덜 개입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원리의 추출이 가능한 설명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II. 중심내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중심내용이 텍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Cunningham & Moore(1986)의 연구에서 중심내용에 대하여 ‘주제(theme), 요지(gist), 논점 화제(topic issue), 주제문(thesis sentence)’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¹⁾. 이 중에서 본고는 중심내용을 ‘요지(gist)와 같이 정의한다. 왜냐하면, 본고의 목적은 텍스트에서 중심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요지’는 ‘교재에 있는 명백한 내용들의 요약’이므로 교재를 단서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제’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하며, ‘주제문’은 중심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텍스트에서의 추론(inference)에 의한 중심내용 파악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심내용은 ‘화제’, 즉 ‘무엇’만이 아니라 ‘평언’ 즉 ‘어떠하다’가 함께 포함되는 명제 형식이어야 텍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논점 화제’는 화제에 대한 진술만 있으므로 텍스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중심내용을 텍스트의 명시적 진술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명제인 ‘요지(gist)’로 정의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본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개념으로 중심내용을 정의하고 연구하였으며, 일부는 논점화제를 연구한 것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본고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그 연

-
- 1) · 텍스트 : “말은 로코풀을 먹고서 뇌병에 걸리거나 미치게 된다. 이런 말들은 눈이 반쯤 멀어서 비틀거리며 양철깡통이나 오래된 뼈, 심지어 철조망조차 씹어댄다. 관절은 굳어 가죽은 거칠어지게 된다. 곧 비참하게 죽는다.”
- 주제(theme- 생활, 세계에 대한 일반화) : 농장주는 동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요지(gist- 교재에 있는 명백한 내용들의 요약) : 로코풀은 말에게 독약이다.
 - 토픽논점(topic issue- 교재의 맥락을 짚는 단일 단어나 구) : 위험한 식물, 로코풀.
 - 주제문(thesis sentence- 교재의 내용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문장) : ‘로코풀을 먹고서 뇌병에 걸리거나 미치게 된다.’

구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van Dijk(1977)의 거시규칙(macro-rule)을 꼽을 수 있는데, 중심내용 파악 전략 또는 요약 전략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거시규칙은 일반화규칙, 삭제규칙, 통합규칙(선택규칙), 구성규칙의 네 가지로 구체화되는데, 일반화 규칙은 아래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개념 또는 명제를 그것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바꾸는 것이고(1), 삭제규칙은 구체적인 정보, 또는 반복되는 정보,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며(2), 통합규칙(선택규칙)은 중심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선택하라는 것으로서, 이때의 판단 기준은 正常性(normality)이다(3). 그리고 구성규칙은 중심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구성하라(만들어 내라)는 것이다(4)²⁾.

- (1) 철수는 영화관에 자주 간다. 철수는 영화광고를 꼭 살핀다. 철수는 영화 배우의 이름을 많이 안다. 철수는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한다. => 철수는 영화를 좋아한다.
- (2) 철수가 푸른 색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으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 철수가 공으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 (3) 철수는 어제 부산에 갔다. 그는 역까지 택시를 탔다. 그는 기차표를 샀다. 철수는 부산행 기차를 탔다. => 철수는 어제 부산에 갔다.
- (4) 철수는 어제 역까지 택시를 탔다. 그는 기차표를 샀다. 그는 부산행 기차를 탔다. 철수는 부산역에 도착했다. => 철수는 어제 부산에 갔다.

이 거시규칙을 분석해 보면, 네 가지의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심내용이란 텍스트에 나오는 모든 명제로서, 네 가지의 규칙이 모두 포괄적인 명제를 찾는 방법을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 일반화규칙이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며, 선택규칙은 이 포괄적인 명제가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을 때, 그리고 구성규칙은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것을 찾

2) 예문은 천경록(1992)에서 인용.

거나 만들라는 것이며, 삭제규칙은 포괄적인 명제가 아닌 것은 하나씩 지워감으로써 결국 포괄적인 명제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거시규칙은 무엇이 중심내용이 되는가 하는 중심내용의 정의를 확연히 보여준다. 그런데 중심내용인 포괄적인 명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포괄적인 명제로 ‘어떻게’ 일반화하고, ‘어떻게’ 구성하며, ‘어느 것을’ 선택하며, ‘어느 것을’ 삭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독자의 판단의 몫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원리를 더욱 구체화시키려면 포괄적인 명제의 결정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구조(text structure)에 대한 일련의 연구(Kintsch, 1974; Frederiksen, 1975; Meyer, 1975; van Dijk & Kintsch, 1983)에서 최상위 명제가 중심내용이 됨을 말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최상위 명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뿐으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다만 Kintsch(1974)를 비롯하여 Noh(1985) 등에서 ‘반복(repetition)’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명제가 최상위 명제 즉 중심내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 현상이 없거나, 반복 현상이 있더라도 비반복항이 중심내용이 되는 다수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직관(intuition)’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텍스트 구조에 대한 연구 또한 중심내용의 정의 곧 중심내용은 하위의 명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명제라는 점을 van Dijk(1977)에 서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Afflerbach & Johnston(1986)의 연구는 중심내용에 대하여 앞의 연구들과는 다른 국면을 보이는데, 이들은 중심내용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에서 능숙한 독자들이 중심내용을 어떻게 판단해 내는가를 사고구술(thinking aloud)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자들은 중심내용을 결정하는 데 세 가지의 단서를 사용하였는데, 맥락적 지식 기반 단서와 교재 기반 단서, 저자 단서가 그것이다. 맥락적 지식 기반 단서는 내용관련 지식 단서로서, 독자는 친숙한 내용이나 친숙한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그것들 자체를 중심내용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친숙한 것이 독자에게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 수단이 되기 때문이었다.

교재 기반 단서는 텍스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로서, 단어 또는 개념들의 반복, 관계어, 교재구조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들이다. 반복은 독자들에게 중요성을 신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관계어들(예컨대, 마찬가지로, 때문에 등의 표지어)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재 단서는 내용지식단서와 상호작용하며 사용되었다.

저자 단서는 독자가 글쓰는 양식을 통해 저자에 대해 지각하거나 또는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어떤 관련지식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평가적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단서를 사용하면서 독자들은 중심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융통성 있게 대처하였다. 즉 중요성을 판단하되 조건을 붙이는 조건적 중요성을 판단하여 조건에 따라 중요도를 조절하였다. 이것은 가설 설정과 같은 것으로서, 한번 중요성을 판단한 것을 다시 후속되는 정보로 검증하고 세련하거나 거부하는 판단 과정을 보였다.

이 연구는 거시 규칙을 더욱 구체화하여 중요성을 판단하는 준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맥락단서(내용지식 단서), 교재단서, 저자 단서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그러나 이런 단서의 인지와 사용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객관적인 근거와 절차로 중심내용을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에 반해 Aulls(1986)는 중심내용 파악의 한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데, '분류와 범주'로 그것을 설명한다. 분류는 예컨대 '나무연필, 종이, 나무자, 점토커피잔'이 있을 때 이것을 닮은 물건끼리 모으는 것이고, 범주는 그렇게 모은 준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나무연필, 종이, 나무자'로 분류하고, 그 준거를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때 범주화에 의해 정해진 것이 중심내용이라는 것이다.

분류와 범주화의 원리는 중심내용을 판단하는 한 기준을 제안한 것이

라고 보인다. 다만, 이 원리는 ‘중심 화제’의 판단에는 유용하지만 이 화제에 대한 ‘중심 평언’을 설정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Aulls(1986)도 중심 화제의 확인법을 가르치기 위해 분류와 범주화의 원리를 제안한 것인데, 중심내용의 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심 화제를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한 평언을 찾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 중심 평언의 파악에는 여전히 van Dijk (1977)의 거시규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천경록(1992)은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황적 단서’들을 이용해 중심내용을 예측하는 상황적 거시책략과, ‘주제적 표현, 화제 전환 표지 파악, 의미적 책략’을 통해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텍스트적 거시책략의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연구 또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한 것이지 새로운 원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동일하게 가진다. 그리고 박채화(1993)는 중심 화제의 결정 원리를 ‘깊이’와 ‘반복’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토픽이 가장 상위의 토픽이 되고, 이 토픽의 종속절에 해당하는 토픽은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하고 이후의 다른 토픽들은 차례로 하위에 위치한다. 이때 가장 상위의 토픽이 중요 토픽이 되며, 반복이 가장 많은 토픽도 중요 토픽이 되는데, 상위의 토픽과 반복 빈도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이 연구는 중요 화제 결정의 한 객관적 근거를 제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확률 높은 ‘가능성’의 제시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의 제시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중심내용이란 텍스트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명제’임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명제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나 전략을 제시하는데, 분류와 범주화, 교재기반 단서, 깊이와 반복 등은 객관적인 근거나 분석의 절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심내용의 분석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원리로 정립되어야 한다.

Ⅲ. 중심내용의 분석 원리

1. 포괄성의 원리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심내용을 정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포괄성이다. 포괄성이란 다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포유류, 어류, 조류, 파충류’라는 항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은 ‘동물’이다. 물론 ‘생물’도 이들 항목을 포괄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의미가 중심내용으로 더욱 적합하다.

이러한 포괄성은 ‘구체항’에서 ‘일반항’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연결의 고리 위에서 연산할 수 있는데, 예컨대 ‘레빈 부인은 포테이토 팬케이크를 잘 만든다. => 시카코의 여성들은 요리 솜씨가 좋다. => 미국은 요리법이 우수하다³⁾’와 같이 화제와 평언을 한 단계씩 일반화시켜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의 텍스트에서 각 명제를 포괄하는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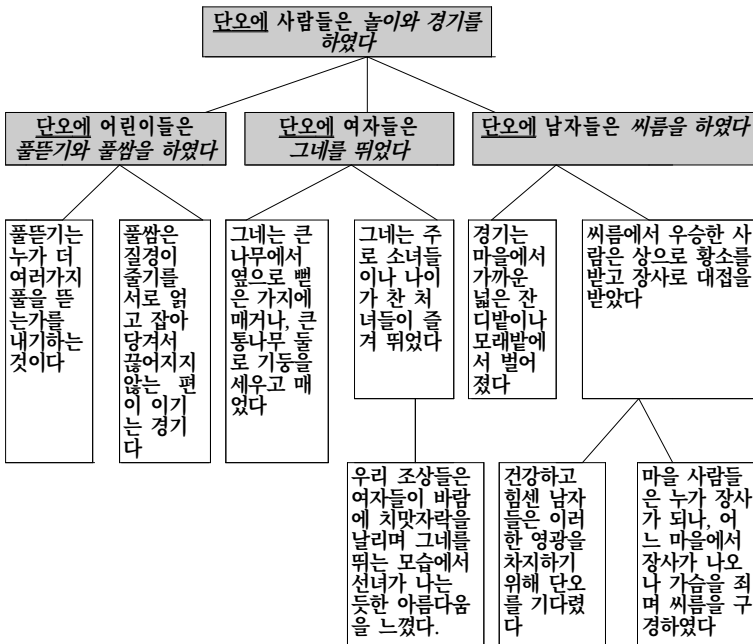
단오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이와 경기를 하며 이 날을 즐겼다. 어린이들은 누가 여러 가지 풀을 더 많이 뜯는가 내기를 하기도 하고, 풀쌈을 하기도 하였다. 풀쌈은 두 어린이가 질경이 줄기를 서로 얹고 잡아당겨서 끊어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경기다.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큰 나무에서 옆으로 뻗은 가지에 매거나, 큰 통나무 둘로 기둥을 세우고 매었다. 그네는 주로 소녀들이나 나이가 찬 처녀들이 즐겨 뛰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바람에 치맛자락을 날리며 그네를 뛰는 모습에서 선녀가 나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다. 이 경기는 마을에서 가까운 넓은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 벌어졌다.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은 상으로 황소를 받고

3) Hayakawa의 추상의 레벨 참조.

장사로 대접을 받았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힘센 남자들은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단오를 기다렸다. 씨름 경기가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누가 장사가 되나, 어느 마을에서 장사가 나오나 가슴을 죄며 씨름을 구경하였다. <임동권의 ‘단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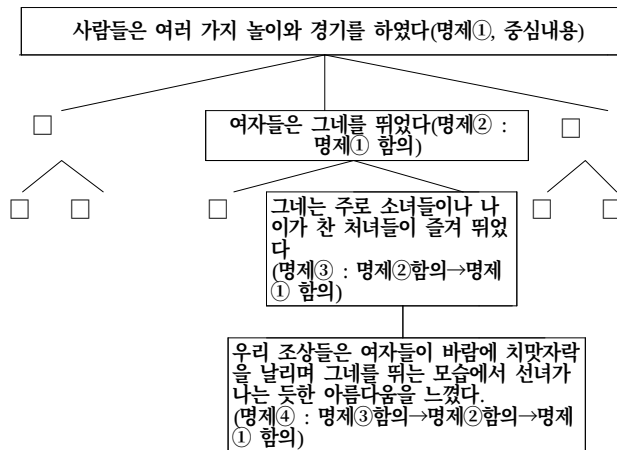


각 문단의 중심내용은 ‘단오에 어린이들은 풀뜯기와 풀쌘을 하였다’와 ‘단오에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다’, 그리고 ‘단오에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다’이다⁴⁾. 여기에서 ‘단오’는 모두 반복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의미가 그대로 상속되고, 세 명제의 화제인 ‘어린이들은, 여자들은, 남자들은’의 일반항은 ‘사람들은’으로 연산된다. 그리고 ‘풀뜯기와 풀쌘을 하였다, 그네를 뛰었다, 씨름을 하였다.’의 일반항은 ‘놀이와 경기를 하였다.’로 연

4) 문단별 중심내용의 설정은, 그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간의 관계 분석과 그에 따른 의미의 연산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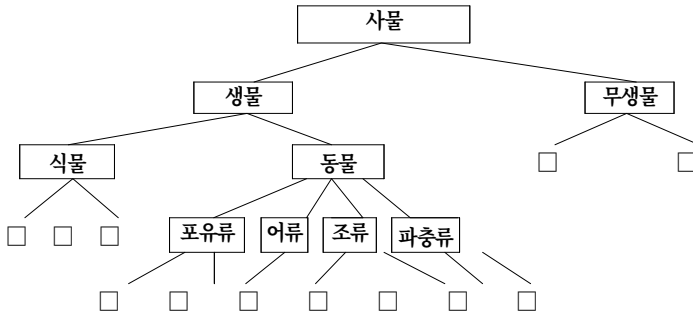
산된다. 따라서 이 글을 포괄하는 중심내용은 ‘단오에 사람들은 놀이나 경기를 하였다.’로 연산된다.

여기에서 언어 의미의 특성상 ‘포괄한다 또는 포함한다’는 것은 ‘-에 함의된다’와 같은 뜻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물’은 ‘포유류’를 포함하지만 또한 ‘포유류’라는 의미 속에는 ‘동물’이란 의미가 이미 함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단오에 사람들은 놀이와 경기를 하였다.’는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다.’를 포함하지만 역시 이 속에 함의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심내용이 되는 명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하위의 모든 명제들 속에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텍스트를 이루는 다수의 다양한 문장(명제)이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결속성(coherence)있는 구조체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심내용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명제 속에 함의되어 있음으로써 텍스트를 하나의 의미로 결집시키는, 텍스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산법에 의해 텍스트의 전체 명제를 포괄하는 중심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연산의 준거는 ‘지식 구조’이다. 인간의 지식은 사용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기억되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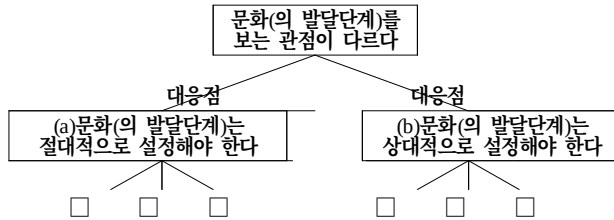
음과 같은 위계적인 구조로 정리되는 것이 그 체계적인 정리 방법의 한 가지이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 구조에 따라 상위의 내용을 연산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중심내용을 분석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지식 구조에 근거한 중심내용의 연산 방법을 의미 관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의미 관계는 나열(원소-원소) 관계, 비교/대조(대응점-대응점) 관계, 인과(원인-결과) 관계, 반응(문제-해결) 관계, 상술(핵심-부가) 관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Meyer, 1985a, b; 김봉순, 1996). 이 중 나열 관계는 앞의 ‘단오’의 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비교/대조 관계에서의 중심내용의 결정 과정을 보면 나열 관계와 같이 지식 구조에 근거한 화제와 평언의 의미 연산으로 중심내용이 결정된다.

- (a) 모든 사회의 문화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화하며, 이러한 문화의 변화 과정은 또한 ‘진보’로 이해될 수 있다. 실로 모든 문화는 야만, 미개, 문명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문명의 단계는 미개의 단계보다, 미개의 단계는 야만의 단계보다 더 나은 문화 또는 더 발달된 문화로 파악된다. 가령 오늘날의 선진사회의 문화는 이미 문명의 단계에 도달한 것인 데에 비하여 아직도 많은 다른 사회의 문화는 문명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b) 이와는 달리, 어느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특성이 다른 사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

회의 문화라도 그것은 그 사회 나름대로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온 역사적 과정의 결과이며, 그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절대적인 발달 단계가 있다기보다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 자체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평가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94년도 서울대 실험평가 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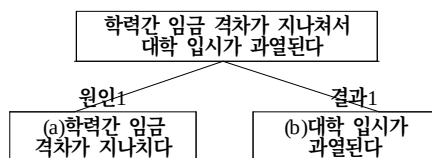
이 비교/대조 관계의 경우 중심 화제는 ‘문화’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문화의 발달단계’로 파악되므로, 전체 텍스트의 중심내용에서 화제는 ‘문화(의 발달단계)’로 설정된다.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평언은 각각 ‘절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와 ‘상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인데, 이들 평언을 포괄하는 상위 명제는 ‘(문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로 설정할 수 있다. 비교/대조 관계는 관계의 특성상 동일한 화제에 대하여 관계 대상 명제들이 서로 의미적 ‘대칭’을 이루는데, 이 때 대칭의 양상은 ‘같음’ 아니면 ‘다름’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상위 명제인 중심내용의 서술어는 ‘같다’이거나 ‘다르다’가 된다.

그리고 인과(원인-결과) 관계와 반응(문제-해결) 관계에서의 중심내용의 연산은 앞의 두 관계(나열 관계와 비교/대조 관계)에서와 같이 대상 명제들을 포괄하는 의미 범주에서 중심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인과 관계와 반응 관계는 앞의 두 관계와는 다른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 명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즉 상대 항목이 있음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필연적인 존재쌍이 되기 때문에, 포괄성의 의미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필연적 존재쌍이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로서, 어느 한 요소의 설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 요소의 존

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원인-결과 관계와 문제-해결 관계에서 중심내용은 바로 이러한 필연적인 존재쌍의 개념으로 포괄성이 연산된다. 예컨대, ‘영이와 철수가 간다’와 ‘영이가 간다. 철수도 간다’가 동일한 상황을 두고 말한 것일지라도 그 인지된 내용은 다른데, 전자는 영희와 철수를 한 묶음의 인지 단위로 보고 이 묶음체가 ‘가다’는 개념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의 사상으로 인지한 결과이고, 반면 후자는 영희와 철수를 각각의 분리체로 보아 이 상황을 두 개의 사상으로 인지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인지된 상태에 따라서 하나의 사상 즉 하나의 명제로 표상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분리된 사상들 즉 복수의 명제로 표상될 수도 있다. 이 때 분리된 현상으로 인지된 두 개의 명제는 하나의 단일 현상으로 인지된 단일 명제를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명제를 포괄하는 상위의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각 대상 명제들에 아무런 관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명제들은 개별적인 낱말의 사상을 지시하지만, 이 명제들 사이에 원인-결과 또는 문제-해결이라는 관계가 부여되면 대상 명제들은 단일 사상을 지시하는 명제로 통합된 하나의 명제가 되어 각각의 명제들을 포괄하는 중심내용이 된다.

- (a) 일본의 경우 '89년 현재 생애 임금에 고졸 남자가 대졸 남자의 77%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의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지나친 것이며, (b) 그 당연한 귀결로 대학 입시 열기도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준만의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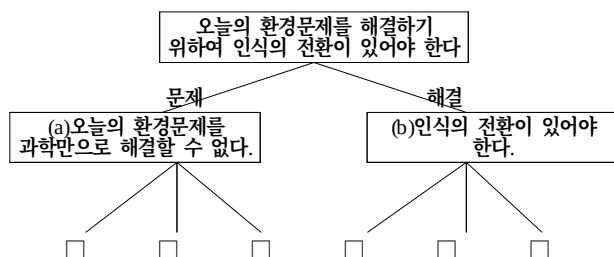


- (a) 오늘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 공학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오히려 오늘의 비극을 가중시켜 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의 힘이 막강하고 그 수준이 찬탈할 만한 것이라 해도, 과학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적절하다. 실제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켜 왔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토록 삶의 태반을 망가뜨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보와 발전이라고 믿어 온 것은 과학에는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전혀 근거 없는 미신 때문이라고 하겠다.

- (b) 오늘의 환경 문제를 과학 기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 무엇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닥친 위기는 개별 민족 단위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사 전체의 경험으로서도 미증유의 것인 만큼 여기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사실에 먼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런 유례없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상적 측면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적, 임시적, 외면적 수습책으로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태적 위기로 요약되는 오늘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자연스럽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 1994학년도 서울대 본고사 지문 >



인과 관계의 경우 ‘학력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다.’는 원인 명제와 ‘대학입시가 과열된다.’는 결과 명제는, 이 둘을 필연적 존재쌍으로 연합한 ‘학력간 임금 격차가 지나쳐서 대학입시가 과열된다.’는 복합 명제를 형성함으로써 중심내용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반응 관계의 경우도 ‘오늘

의 환경문제를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명제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해결 명제를 연합한 ‘오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복합 명제의 구성에 의해 포괄적인 중심내용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상술(핵심-부가) 관계의 경우, 이 관계의 성격 자체가 포괄적인 명제는 상위 명제가 되고 등가(等價)이거나 구체적인 명제는 하위 명제가 되어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자동적으로 상위 명제, 즉 핵심 명제가 중심내용이 된다. 이것은 상술 관계의 정의 자체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a)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높다. (b)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인상은 법조인들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김철수의 신문 칼럼>

(a)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높다.

핵심
부가

(b)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인상은 법조인들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이 두 명제는 서로 등가의 의미 범주를 갖는데, 이 중 어느 하나가 핵심 명제 즉 중심내용이 되고, 다른 하나가 핵심 명제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덧붙여진 부가 명제가 된다.

이상에서 지식 구조에 근거하여 하위의 구체적인 명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명제, 즉 중심내용을 명제간 관계의 특성에 따라 의미를 연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었다. 이것을 중심내용 분석에서 포괄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2. 선호성의 원리

위에서 지식 구조에 근거한 포괄성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중심내용이 ‘포괄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단에서 첫 문장이 둘째 문장보다 의미가 더 포괄적이지만, 이하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김치의 특성, 종류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문단에서의 중심은 둘째 문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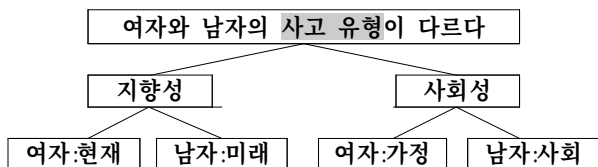
한국인이 생활 속에서 쌓아 온 지혜로운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에서도 김치만큼 과학적이고 영양이 풍부하며, 조상의 슬기로움이 잘 담겨 있는 것은 드물다.⁵⁾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 구조와는 달리 필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중심내용이 결정되는 현상이다. 위 예문에서 필자는 이하의 내용을 모두 ‘김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필자의 관심은 ‘김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김치’와 관련하여 중심내용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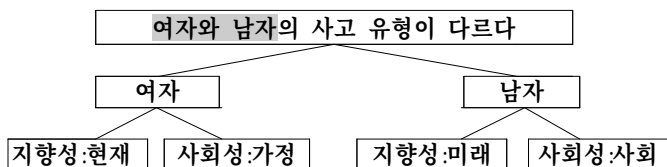
여기에서 포괄성과는 달리 중심내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필자의 ‘선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호성이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텍스트에서 각각이 전제하고 있는 객관적 지식 구조는 동일하지만 필자의 표현 방식 등의 의도에 따라 실제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지식 구조는 다른데, 이와 같이 필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지식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 ㉦ 여자와 남자는 사고 유형이 꼭 다르다. 여자는 대개 현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는 대개 미래에 눈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자는 보통 가정, 사랑, 그리고 안정성을 주로 생각하지만, 남자는 모험과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5) ‘김치’라는 제목의 설명문의 첫 문단(서두).



- ㉞ 여자와 남자는 사고 유형이 꼭 다르다. 여자는 대개 현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 가정, 사랑, 안정성을 주로 생각한다. 반면 남자는 대개 미래에 눈을 두고 있으며, 모험과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㉞과 ㉞의 두 텍스트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조직구조는 서로 다르다. 이 때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객관적 지식구조라 하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주관적인 지식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부분 즉 주관적인 부분은 ㉞텍스트의 경우 필자가 ‘지향성’과 ‘사회성’이라는 성향을 상위자질로 생각한 반면 ㉞텍스트의 생산자는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상위자질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㉞텍스트에서는 ‘사고유형’의 차이가 강조되었고, ㉞텍스트에서는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 유형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텍스트는 필자의 주관적인 심적태도를 강조나 재구조화 등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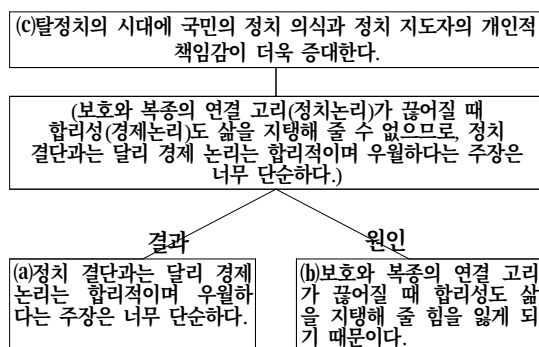
그런데, 필자의 선호성은 객관적 지식 체계와는 다른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를 통해 명시된다. 필자가 설명적 텍스트로써 의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새로운’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주관이 반영된 지식 체계가 바로 텍스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결코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또한 객관적 지식체계에 의한 의미구조는 그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언어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관적 지식 체계는 그렇지 못하므로 반드시 언어로써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때 필자의 주관적 지식 체계에 의한 중심내용의 언어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표지(markers)를 사용한 표현이고,⁶⁾ 둘째는 명시된 상술의 양에 의한 표현이다. 따라서 필자가 의도한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식구조에 의해 연산되는 포괄성과는 달리 필자가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표지에 의한 중심내용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 또는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 표지에 나타남으로써 결정된다. 이 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중심내용이 된다.

(a) 정치 결단과는 달리 경제 논리는 합리적이며 우월하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다. (b) 보호와 복종의 연결 고리가 끊어질 때 합리성도 삶을 지탱해 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c) 탈 정치의 새 시대에 오하려 국민의 정치 의식과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책임감이 더욱 증대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상기의 ‘일탈-국제화 이데올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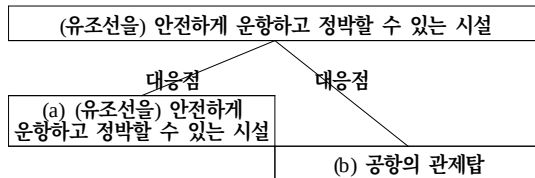
6) 표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김봉순(1996) 참조.

위의 예문에서 ‘나는 생각한다’는 표지를 통해 이 문단에서 중심내용은 (c)가 된다. 이 문단에서 (a)와 (b)는 인과 관계에 있는데, 이 두 문장의 의미를 연산한 중심내용과 (c)는 지식 구조상 같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필자가 표지를 통해 (c)를 강조함으로써 중심내용이 (c)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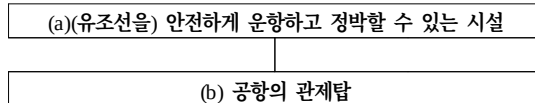
다음은 필자가 어느 하나를 표지를 통해 약화시킴으로써 해서 다른 하나가 중심내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의 예이다.

(유조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조선이 해안에 접근했을 때, (a) 공항의 관제탑처럼, (b) 안전하게 운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다. <Meyer, 1985b에서 재인용>

㉠



㉡



지식 구조로 볼 때 (a)와 (b)는 서로 비교 관계에 있는 대상이다. (a)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인 관제탑이 있음’을 말하고, (b)는 ‘유조선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지식 구조상 두 명제는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대응되는 비교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a)는 ‘처럼’이라는 약화의 표지를 통해서 필자가 부차적인 내용임을 밝힘으로써, 이 문장에서의 중심내용은 (a)명제로 결정된다. 이 때 (b)는 약화의 표지에 의해 부차적인 내용으로 결정됨으로써 해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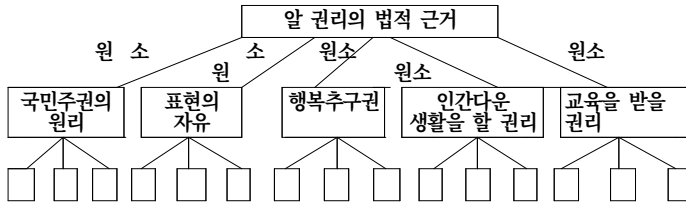
적으로 ㉠과 같이 (a)와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 (a)를 보충 설명하는 부가적인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이 표지는 중심내용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자의 선호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표현 방법 중의 하나가 상술의 양이다⁷⁾. 둘 이상의 명제가 객관적 지식구조에서는 대등하게 대립되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중 어느 한 명제를 필자가 선호할 경우, 선호되는 명제에 대해서는 상술이 많아진다. 이는 ‘선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하위 명제들을 언어화하여 텍스트에서 진술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호되는 명제가 중심내용으로서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심내용이 되는 명제에는 많은 하위 명제가 언어화되어 텍스트에서 상술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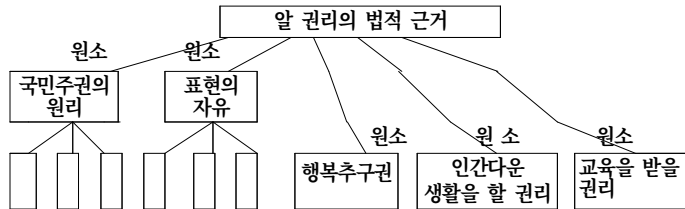
헌법은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 주권 원리나 표현의 자유 등 정신활동에 관계되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 그 (알 권리:논자 주)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민주권 원리는 국정에 관하여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선거나 기타 장소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자유롭고 풍부한 정보 유통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지식·정보의 전달을 전제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는 겉과 속의 관계에 있다. 즉 알 권리가 배제된 표현의 자유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밖에도 알 권리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해 그 근거가 보장되고 있다. <최정호 외의 ‘매스미디어와 사회’>

7) 본고에서의 ‘상술의 양’은 문학적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논의들에서 ‘부분의 독자성’(조동일) 또는 ‘장면의 극대화’(김대행)로 설명하는 지연(遲延) 혹은 장면의 구체화의 초점 장치와 상통한다(서혁, 1996, p.117 참조).

㉦ 지식 구조



㉧ 텍스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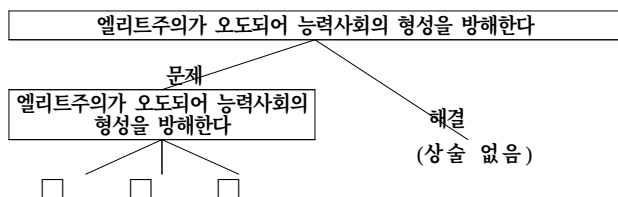


이 텍스트에 따르면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식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자격으로서 대등하게 열거된다(㉦). 그러나 필자는 앞의 두 항목만 상술하고 뒤의 세 요소는 간단히 처리함으로써 앞의 두 항목이 뒤의 세 항목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주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의 중심내용은 상술된 ‘국민주권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문제-해결 관계에서 상술의 양에 의해 중심내용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엘리트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대학과 대학생들이 능력에 있어서 평등할 수는 없으며 평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엘리트주의가 크게 오도되어 있으며, 배타적인 학맥의 형성이 자유 경쟁에 근거한 능력 사회의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선 대학의 특성화는 물론 대학 간 선의의 경쟁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대학 출신자와 고졸 출신자 사이의 기회 균등과 그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강준만의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이 텍스트는 엘리트주의가 갖는 ‘문제’를 제기한 내용인데,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하여 ‘해결’이 언급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는 해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상술한다. 즉 필자는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글 쓴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문제’와 ‘해결’의 의미 연산에 의해 중심내용이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 텍스트의 중심내용은 필자가 강조하는 ‘문제’만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된다.

이상과 같이 표지와 상술의 양이 필자의 선호성을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이 되는데, 이 두 방법론은 각각이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능하여 상승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술의 양이 많으면 표지 또한 명시적으로 사용될 경우 텍스트의 중심내용은 가장 선포하게 드러난다.

3. 상호성의 원리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명제를 설정하는 포괄성의 원리와 필자가 선호하는 명제를 결정하는 선호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 양자는 각각 작용하여 중심내용을 구성하지만, 상호 의존적으로 동시에 작용하여 중심내용을 구성하기도 한다.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분석할 때 독자는 일차적으로 지식구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명제로써 중심내용을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이 선호성과 상충될 때 결과적으로 독자는 필

자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선호성의 원리를 우선 적용하여 중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지금 우리 역사에서 근대라는 시대를 언제부터 잡아야 하는지 학계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학계의 의견은 대략 실학시대로부터 해방에까지 걸쳐 근대의 기점을 잡고 있다. 과학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와 같은 문제는 똑같이 존재한다. (b) 1945년까지 우리 나라의 과학계는 스스로 연구를 해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해방 당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과학자는 불과 10여명 정도에 지나지 못했다. (c) 반면 서구의 과학은 실학자들에 의해 꽤 많이 수용되었다.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실학 운동은 서구 과학에서 큰 자극을 받아 몇 가지 특징을 발달시켰다. 실학자들이 전통 사회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처방은 모두가 예전의 동양 사상가들이 이미 주장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사상 내용에 전통과의 단절을 보여 주는 요소들은 모두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박성래의 ‘칼럼으로 쓴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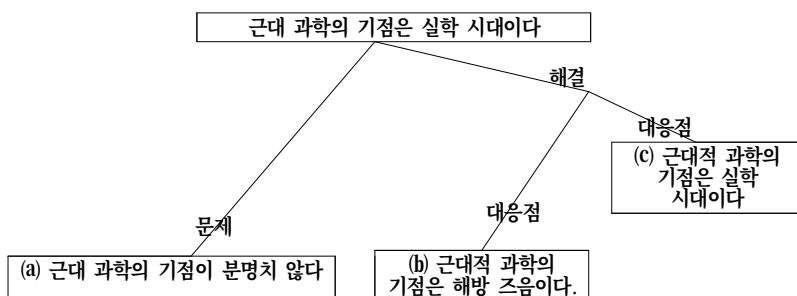
위의 텍스트를 포괄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장 (a)가 문장 (c)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a)가 중심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이하에서 계속되는 상술의 정도로 볼 때 필자는 (c)를 강조하고 있어서 (c)가 중심내용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선호성 우선 규정만으로 중심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로서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선호성과 더불어 필자가 해당 텍스트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가 파악되어야 그 텍스트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중심내용을 필자의 단순한 주관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제시한 ‘지식의 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식 체계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비추어

주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식 체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설명적 텍스트를 생산한 것으로 볼 때, 필자의 주관적인 지식 체계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설정된 중심내용을 다시 포괄성의 원리로 환원시켜 의미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필자가 의도한 지식 구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예시 텍스트에서 포괄성의 원리로 볼 때 최상위 명제로서 중심 내용으로 판단되는 문장 (a)는 표면적으로는 대응점-대응점 관계의 상위 명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호성에 의해 결정된 최상위 명제인 문장 (c)가 중심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의 최상위 의미 관계는 대응점 대응점 관계가 되어서는 설정될 수 없고, 명제 (a)를 ‘문제’ 명제로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명제로서 명제 (c)를 설정하는 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포괄성의 원리와 선호성의 원리가 각각 작용한다. 이 두 원리가 상충될 경우 선호성의 원리를 우선한다. 그러나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중심내용은 포괄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의미구조가 재구성됨으로써, 상황의존적인 선호성 원리를 본질적인 원리인 포괄성 원리로 회귀시킬 수 있다.

IV. 결론

설명적 텍스트는 지식 체계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필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 체계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의 중심내용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설명적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구조 수준에서 정의하였다. 중심내용은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명제들에 공통적으로 함의되어 있음으로써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명제들을 포괄하는 명제이다. 이러한 중심내용은 의미구조에서 최상위의 명제로 나타난다.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중심내용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구현되는데, 하나는 객관적 지식 체계에 의한 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의 주관적 지식 체계에 의한 구현이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지식 체계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명제가 전체 명제를 포괄할 수 있는 명제로서 중심내용으로 결정되고, 후자의 경우 필자에 의해 선호되는 명제가 전체 의미구조의 최상위에 놓이게 되어 중심내용이 된다. 여기에서 포괄성은 구체 명제에 대한 일반 명제, 원자 명제에 대한 복합 명제 등으로 결정되고, 선호성은 필자의 의지에서 시발되는데 표지와 상술의 양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중심내용 구현 양상에서 두 가지의 중심내용 분석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포괄성의 원리에 의해 중심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하위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텍스트의 중심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중심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포괄성의 원리 중 선호성의 원리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중심내용이 결정될 경우 그 중심내용이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전체 의미구조에서 포괄의 기능을 하여 최상위에 놓일 수 있도록 의미구조가 재구성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에 의해 필자가 제시한 지식 체계가 포괄성의 원리 하에 다시 분석되면서 새로운 지식 체계로 구성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중심내용 분석 원리는 설명문 및 논설문을 비롯한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 지도의 방법을 제시한다.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를 지도하기 위하여 먼저 중심내용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고, 포괄성의 원리에 터하여 기존의 배경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하향식 독해 전략을 사용하고, 선호성의 원리에 터하여 표지 및 상술의 양을 활용하는 상향식 독해 전략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봉순, 1996, 텍스트 의미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언주, 1991, 인지심리학 : 이론과 적용, 정민사.
- 박채화, 1993, 국어 담화의 주제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서 혁, 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삼형, 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성영, 1994, 표현 의도와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용주, 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 천경록, 1992, 덩이글의 주제 구성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J. R.(1981) Concepts, propositions, and schemata: what are the cognitive unit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0, H. E. Howe, Jr. ed.,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Anderson, J. R.(198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이영애 역, 1988, 인지심리학, 을유문화사.
- Chafe, W.(1976) Givenness, contra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 and point of view, Li, C. N. (ed.), Subject and Topic, N.Y. Academic press.
- Collins, A. M. and Quillian, M. R.(1969) Retrieval time from semantic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8, 240-247.
- Cunningham, J. W. and Moore, D. W.(1986) The confuse world of main idea, Baumann (ed.),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Frederiksen, C. H.(1975) Representing logical and semantic structure of knowledge acquired from discourse, *Cognitive Psychology* 7, 371-458.
- Halliday, M. A. K. and Ha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Kintsch, W.(1974)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ntsch, W. & Yarbrough, J. C.(1982) Role of rhetorical structure on text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828-834.
- Meyer, B. J. F.(1975) *The organization of prose and its effects on memory*,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 Meyer, B. J. F.(1985a) Prose analysis: purpose, procedures, and problems,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Britton, B. K. & Black, J. B.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ew Jersey.
- Meyer, B. J. F.(1985b) Prose analysis: purposes, procedures, and problems(Part II),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Britton, B. K. & Black, J. B.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ew Jersey.
- Meyer, B. J. F., Young, C. J., & Bartlett, B. J.(1989) *Memory*

improved: reading and memory enhancement across the life span through strategic text structur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ew Jersey.

van Dijk, T. A.(1977) Text and context, London: Longman.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Noh, M. W.(1985) Effect of topical structure on discours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Doctorial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초록>

설명적 텍스트의 중심내용 분석 원리

김 봉 순

본 연구는 설명적인 텍스트(expository text)를 대상으로 중심내용(main idea) 분석의 원리를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원리로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중심내용이란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명시적 진술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명제이다.

중심내용을 판단하는 원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포괄성의 원리, 선호성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포괄성의 원리란 다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최소의 명제를 구성하거나 선택하라는 것이다. 명제를 화제(topic)와 평언(comment)으로 나누어, 구성 요소인 화제를 포괄하는 최소의 포괄적 화제와 구성 요소인 평언을 포괄하는 포괄적 평언을 객관적 지식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심내용인 명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선호성의 원리란 필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조된 내용을 중심내용으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필자의 선호성은 객관적 지식 체계와는 다른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를 통해 명시되는데, 중심내용의 언어화는 표지(markers)와 상술의 양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활용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상호성의 원리란 포괄성의 원리와 선호성의 원리가 상충될 경우 선호성의 원리를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중심내용은 포괄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의미구조로 재구성하라는 것이다. 선호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중심내용을 포괄성 원리로 회귀시킴으로써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지식구조를 독자가 이해하고 그것에 터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The strategies of a Main Idea analysis
in expository texts**

Kim, Bong -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strategies of a main idea analysis in expository texts. In this study, a main idea is a proposition that summarizes explicit contents in text.

As the results, I construct three strategies. First strategy is 'to construct or select a comprehensive proposition'. A comprehensive proposition is constructed of a minimum topic and comment that comprehends element propositions on objective knowledge structures.

Second strategy is 'to select an emphasized proposition by writer'. An emphasized proposition is expressed as two means ; discourse markers and detailed descriptions.

Third strategy is 'to reconstruct a text-structure centered on the emphasized proposition'. In the case that an emphasized proposition coexist with another comprehensive proposition, the emphasized proposition is concluded to a main idea. In this case, readers must reconstruct a text-structure in that the emphasized proposition is placed in the highest macro proposition. Because, with this reconstructed text-structure, readers can understand writer's new knowledge structures.